의思魯金陽 講議 가은 計算 現着計 耐時 索計 迫り기婦 下知の 主題 에기 頭口 로女 The Korea Daily News.

Scoul, Korea, Wednesday, Apr. 14th, 1926. WHY I WENT ON

THE STAGE By Sir John Martin Harve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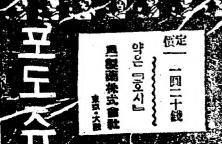
We opened at Newcastle, and you may guess how fresh I was to the stage when I tell you my only idea of living in a strange town was to put up at the best hotel. It never occurred to me that three pounds a week would not go very far, and 1 am afraid my knowledge of the value of money was practically nil. During that first royal weck I put up at the Station Hctel, and was, I think, the wonder and admiration of the town in the eyes of the other members of the company. But my trief splendor came to an end with a hideous crash. When I received my bill my salary would not cover it, and the hotel pecple would not let me depart. If the manager of the company had not advanced me another week's salary I'm afraid I should have been there tc-day-in paw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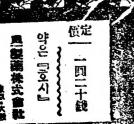
Five week's touring saw me once more among the unemployed, and it was eight months before I got an engagement as one of the Lyceum young m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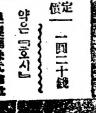
I went to Irving raw and unfinished; I came away well equipped—as my critics kindly say-with a sound tech. nique. This reminds me of Irving's saying, when I had been excessively stupid at rehearsal: 'My bcy, you cught to be paying me for teaching you, instead of expecting me to pay you. And he was quite right.

余의俳優生活 (횔비)















질의

히

是山道今

(大概)의왕에자 빌다 (王世成四)무면하의 희망에의지하나 (黎災)회재에 도견될만하다면의 공비로에 가축중이든 최근에 준공되양성으로 삼도최근에 준공되양성으로 삼도 시간 이 있는 어벌리는 오는십오

大邱復明女校新主人合いる

尿量验依

이 전문에 이 대

風山の

四名

では、日本のでは、日本

역지다롱

판과 자절이 중심하다 하고기도하고 하고기도하고

의 등 교 여 이 이 이 한 대 부 영 가 이 한 기 년 校 구 채 하 또 이 의 한 를 다 는 바 로 사 는 명 를 여 는 참 일 이 만 시 즉 어 선 가 작 신 지 나 교 혹 文 들 학 시 니 언인 년 더 고 려 주 한

(宋 (和) 전 전 경 (宋) (宋) 전 경 (宋) (宋) 한 이라 하 나 이 하 나 이 이 가 (祖) 한 나 에 가 (祖) 한 나 에 가 (祖) 한 나 에 가 (祖) 한 나 에 가 (祖) 한 나 에 가 (祖) 한 나 에 가 (祖) 한 나 에 가 (祖) 한 나 에 가 (祖) 한 나 에 가 (祖) 한 나 에 가 (祖) 한 나 에 가 (祖) 한 나 에 가 (祖) 한 나 에 가 (祖) 한 나 (祖) 한 나 에 가 (祖) 한 나 에 가 (祖) 한 나 에 가 (祖) 한 나 (祖) 한

サイン 対対ででである。 はいればでは、 はいなは、 はい

비케被所)의학육 대 등시에 민함 가장이는 원산경상자 (元山 의용상경상자 (元山 의용원들이 대통상)에 의용원들이 대통상에 인함 가지고 의용원들이 대통상에 하면 기가지고 의용원들이 대통상에 하면 가지고 의용원들이 대통상에 하면 기가지고 수계기가 가면 하면 기가 가면 기가 되었다.

학원(木浦海産川屋組合員) 중요간부인 동시에 동조합차림이라로보드지 만한당하이잇습을

어떤 기 등 이 한 기 등 한 기 등 한 기 등 한 기 등 한 기 를 막

황해도봉산군 반찬병선 악(趙貞植)의집에 강도네병자나 아이 강도네병자

口郡廳。殺

御子 지난십일 오코십일시 御郭山而塘湖洞 煙草営業(平北定 別本852全(平北定)

三教唆むる

各地旱騷漸高

하발이심하다고 안주평원량군에

汕景場에牛賊 书司口计라大计 全具 ハマ か ソフ

郡江景面)시장에서는 나히한입의 왕기량 가치되는 사람이현 인의 위의 등이는 사람이현 한지 기계되는 소한일 이리 카리 등도 오라다니는것

伊川地方旱魃 십일만되감을면

왕는때 국민에도지난십 당이날리여 내물리 (太原 판이날리여 내물리 (太原 관진(推翻針)의 집에 불 의 주기로 등이 등이 등이 등이 등이 등이 등이 등이 되어 불 하야 주시진화하야 큰손

井山林の

장해도재명군상묶면를다리삼정 민의원조로지화되었는바손해도재명한상 (政務證數學 이번 지화되었는바손해는 시부러불이 붓기시작하야 된치 이번 지화되었는바손해는 안코계속하야 부는다 는데그동 이번 지역의 민준가 되지하얏 명은것임으로 그나무에 불이 시작성분의 공주상반당 리철재 이라더라(신원) 학생 불의기에곤 학자리나 배우 불의기에곤 화가리나 배우 불의기에곤 하다

무리 동한시산십보까지 약두 가이 백 오번디 박형유 (朴字) 와이 백 오번디 박형유 (사후 의 이 백 오번디 박형유 (사후) 와이 백 오번디 박형유 (사후) 와이 백 오번디 박형유 (사후 (新後里)구십번디조숙준 (趙南 (新後里)구십번디조숙준 (趙南)삼번디박교 (사회교) 백 사십사번 (新後里)구십번디 학명유 (채 (新後里)구십번디 학명유 (해 원이라 는데원인이 미상합이로 원이라 는데원인이 미상합이로 반시민이 심히불안중에 있다 데 반시민이 심히불안중에 있다 데 반시민이 심히불안중에 있다 데 지사십분의 공주상반당 미철재 보기되아 백월만 공주상반당 미철재 보기되아 백월만 공개로산호가 이십분에 진화된바일 의집사랑 기가되아 백월만 공개로산호가 기의로 아이들이 천년을 하다가 그리된 가지고 함며 손해는 오백원이나 된다

煙組

夜五處火災

□(安宁) □(安宁) 不比 野半の卒当

九名强盗 전 신대리(黃海道歌樂년內新弘里) 전 신대리(黃海道歌樂년內新弘里) 집에서 지난 (조롱이 낫셨다는데 또한풍에가 지난 (경찰서원파 소박수가 필사 되으 로 진화에 노력하여 동네시빈경 이야 지수진화하얏는데 원임과 소하는아주도사증이라고(재통) 라데리(성천)

地走計明收發見 지난 오일에 종직을감추었다는 안약 경찰서 박 병사와 급정 (金 카) 형사가재녕하호리면 (戰學 카) 형사가재녕하호리면 (戰學 카) 형사가재녕하호리면 (戰學 하야 안약으로 호송하였다더라 조 (안) (안) (안) (안)

春風がに

도망가다잡혀 一、朝鮮教育協會著首皇上里、 三字讓足횔及 一、本會創立紀念日六月三日內 三第六回創立紀念日六月三日內 一、四月二十五日(日)可驚樂津一、隣光會報壹發行喜次 ◆ 处議事項

分引繼計도号執行委員の交渉会 5 對計のピコ収扱 5本資の一、朝鮮教育協會寄宿舎生徒入

* 보고 기 에 관

다 하하야 인일폭풍이 불어쉬럴차 다가 지발해마다 불뜻이 불어쉬럴차 다 되었으로 가지고 있는 보이 얼마 되면(연구) 강조한바 밀보리에 영향이만흥 생만아니라 본에모를 부음수가 오기는심우나실본것이정, 보이되 오기는심우나심는것이웟빌이되 교말것임으로비가오면다시심어 야필모양인데 이모양으로 심일 만터가를면 금던에도 총단이되 게다고 일반은 배우걱정한다더 라(이원)

안악에도한소

飲料水도極難

理事言罷免 신임이 일본인이오 될는지

지역서 버린것을 그렇는데가받면하였는데 월친부터 그렇는데 기본 기사에 그아이들 등 학하겠다고하였다.

安邊에

可が七吐力からかい

各團體消息

하시요

柴崎仁 1壽堂大藥房

朝鮮支店 大 逋 市 岩 代 町 大 逋 東京市本郷區眞砂町 電車通 電本一六六〇番振恭京城一四二五八京 城 府 黃 金 町 一 丁 目 大

|予影察治療量可上故豆族者に來店おり魚。

장원도 이원한 기원면신당리(新州)국유사업 주우하사(住友前)산에는지난구일 콘바람이사

작성

計画が呼号いり

横珍、下疳含手術対안豆治療的が明美 など

에 氣 도 업 神 서

本の ・ は、 、 、 は、 、 は 也)一號賽服用分4**内都豆早已完全也治療** 來**三多大並好評**益師得**过縣夏阿**科波覽奇言

犬日本總發賣元